보복 소비 터졌다…광주 백화점 역대 최대 매출

광주 백화점 3곳 매출 1000억원 돌파…명품·골프 매출 이끌어
대형마트 2곳 영업종료에 매출 2.3% 감소…전국은 5.9% 상승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과 이른 한파로 인한 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역 대형소매점 매출이 2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광주 백화점 3곳은 해외 명품과 골프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하며 통계를 낸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역 대형소매점 매출(경상금액)은 광주 1609억원·전남 694억원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9.8%(145억원)·8.2%(53억원) 증가했다.

전국 대형소매점 매출은 전년보다 14.7%(7921억원) 증가한 6조1898억원을 기록했다.

대형소매점 매출 증가율은 대전이 34.9%로 가장 높았다. 대전에는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대전신세계 아트&사이언스'가 들어섰다.

대전에 이어 서울(19.6%), 부산(15.6%), 경기(12.8%), 제주(12.2%), 대구(12.0%), 세종(10.3%), 광주(9.8%) 등 순이었다.

광주지역은 지난 1월 대형소매점 매출이 전년보다 8.5% 감소한 것을 끝으로 9개월 연속 증가 추세이다.

전남은 지난 9월 매출이 0.2% 감소했지만 다음 달 반등했다.

10월 대형소매점 매출 증가는 백화점이 이끌었다. 백화점 매출 통계를 지닌 8개 시·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광주 3대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23.5%) 보다는 낮은 18.5%를 나타냈지만,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세웠다.

10월 한 달 광주 백화점 3곳의 매출은 1017억 5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158억 5500만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낸 지난 2015년 1월(739억 3700만원) 이후 가장 많은 매출이다.

광주 백화점 매출은 올해 7월 708억8800만원에서 8월 692억4300만원으로 줄어든 뒤 9월 862억 7200만원, 10월 1017억5700만원 등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편 전국 대형마트는 대규모 할인행사와 이른 추위로 인한 한파용품 수요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보다 5.9% 증가한 반면, 광주는 대형마트 2곳이 재정비를 위한 영업종료에 들어가면서 매출이 2.3% 감소했다.

광주 대형마트 10곳의 10월 매출은 598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14억200만원) 감소했다. 전달보다는 14.7%(-103억3800만원) 줄었다. 전년 동월비 광주 대형마트 매출 감소는 석 달 연속 지속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식당보다 홈파티"…유통가, 고객 잡기 나선다

크리스마스 식기 할인 등
홈파티 상품 강화 나서

올해도 집에서 간소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연말 '홈파티'가 대세일 것으로 보이면서 유통가가 앞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3개월 동안 이 매장의 '테이블 웨어'(식탁용 식기류) 매출은 전년보다 11.8%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올 성탄절도 집에서 소소하게 즐기는 홈파티가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빌레로이앤보흐' 매장은 다양한 식탁용 식기류를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23일까지 크리스마스 전용 식기 꾸러미를 3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백화점 외 유통업계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홈파티' 상품을 강화했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연말 파티족을 겨냥해 유명 요리사 최현석씨와 손잡고 '아임이 최현석 스테이크 키트'를 내놓았다.

혼자 먹기 적당한 양(150g)과 가격(9900원)으로,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조리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했다. 오는 7일까지 이 상품을 사면 백설남해굴소스(350g) 또는 하루e리터(500㎖)를 덤으로 준다.

편의점 CU는 가성비 와인부터 어린이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선물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우선 자체브랜드 와인인 '음!프리미엄' 등 30가지 와인을 34% 할인하고 제휴카드 결제 시 추가로 1000원을 할인해준다.

14일부터는 홈파티 간편식 5종을 출시하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10일까지 예약 판매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세트 10종과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과 장난감 등도 선보인다.

GS더프레시는 7일까지 홈파티를 위한 가정간편식(밀키트) 상품 21종을 30% 할인한다.

올해 11월까지 밀키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 신장한 점을 고려해 판매 품목을 지난해보다 10종 더 늘렸다.

홈플러스는 오는 25일까지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열고 트리와 홈파티 용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크리스마스트리는 행사 카드 결제 시 20% 할인하고, 온라인으로 2시 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해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8층 '빌레로이앤보흐' 매장에서 오는 23일까지 30~40% 할인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전용 식탁용 식기류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24시간 안에 만나는 지역 농산물…이마트 '로컬팜' 2곳 운영

광산점 확대 도입 예정

이마트는 광주·전남에서 수확한 과일·채소를 24시간 안에 소비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로컬팜'을 광주점과 봉선점에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로컬팜은 지난 30일부터 광주점(서구 광천동)과 남구 봉선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로컬팜 공간에서 선보이는 과일·채소는 20여 종이다.

대표적으로 담양 딸기·토마토, 화순 멜론, 장성 사과 등이 있다. 상추, 애호박, 고추, 오이, 버섯, 시금치 등 주요 채소도 지역에서 공수한다.

채소는 지역농가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하며 소비자 신뢰를 높였다.

이마트 측은 근거리 배송을 하면서 다른 상품보다 10~15% 저렴한 가격에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컬팜'은 광산점에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며, 상품 가짓수도 늘리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뚜라미, KCPI 우수기업 선정
온열매트 부문 유일 우수등급
카카오톡 AS 접수 서비스 인기

㈜귀뚜라미(대표 최재범)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2021 한국의 가전소비자보호지수(KCPI)'에서 온열매트 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21개 산업군 111개 기업 중 총 38개 기업이 'KCPI 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온열매트 부문에서는 귀뚜라미가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귀뚜라미는 '소비자보호 체감영역(70%)'과 '소비자보호 실태영역(30%)' 조사에서 모두 온열매트 부문 최고점을 기록했다. 종합점수는 76.9점이다.

귀뚜라미는 지난 2011년 국내 온열매트 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난 10년간 프리미엄 온열매트 시장을 선점해왔다.

지난해에는 보일러 업계 최초로 화재 위험을 줄인 난방매트인 카본매트를 내놓았다. 카본열선과 편의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2년형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은 지난 9월에 신규 출시됐다.

그동안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안심 문자 서비스'와 '해피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보일러 업계 최초로 챗봇 기반 '카카오톡 AS 접수 서비스'도 선보였다. 보일러 업계에서 가장 많은 플러스친구 수(28만명)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의 가전소비자보호지수는 각 기업의 소비자 보호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올해 21개 산업군 111개 기업 중 총 38개 기업이 'KCPI 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온열매트 부문에서는 귀뚜라미가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장김치엔 한돈 수육이 딱
농협 전남본부, 소비촉진 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30일 영암축협 야외행사장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영암축협과 함께 한돈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김장철을 맞아 우리 돼지고기 한돈의 다양한 부위를 홍보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전지 등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한 구이와 수육, 주물럭 등의 요리는 물론 한돈으로 만든 목우촌 햄을 소비자들과 함께 나눴다.

행사에는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 임성주 대한양돈협회 영암지부장, 박종오 영암군 축산과장, 문수전 농협영암군지부장, 이맹종 영암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김장을 통해 겨우내 먹을거리를 준비하듯 우리 돼지고기 한돈으로 면역력을 높여 소비자들이 건강한 겨울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